

축구

6

2019년 8월 6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승점차 4로 벌어진 1위 울산-2위 전북...무엇이 달랐나?

1 뒷심 2 외국인 선수 3 로테이션

전북 뒷심 부족으로 무승부 빌미 외국인 선수는 로페즈 홀로 분전 울산은 김태환 등 아끼고도 대승



‘하나원큐 K리그1 2019’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대급 선두경쟁의 틈새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다.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 FC서울의 3파전 구도로 이뤄지던 선두 다툼에서 서울이 살짝 물러났고, 이어 올 시즌 울스타전으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를 기점으로 1·2위 울산, 전북의 간극도 다소 벌어졌다.

22라운드까지 나란히 승점 48을 쌓은 가운데 다득점에서 앞선 전북이 울산을 따돌리고 선두를 지켰다. 그런데 23, 24라운드에서 울산이 힘을 냈다. 서울을 안방에서 3-1로 제압했고, 제주 유니티

드 원정에서 5-0 패승을 일궜다. 2연승으로 6점을 쓸어 담았다.

같은 기간, 전북은 2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제주와 홈에서 2-2로 비기며 울산에 가장 먼저 승점 50 고지를 찍는 영광을 내줬고 강원FC 원정에서는 3-3 무승부를 거뒀다. 이제 울산은 승점 54, 전북은 승점 50이 돼 16일 울산과 홈 맞대결에서 전북이 승리해도 순위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울산과 전북의 치열한 경쟁은 시즌 개막에 앞서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다. 전북이 기존 전력을 거의 유지한 상황에서 울산은 검증된 베테랑 위주로 폭풍영입을 단행했다. 아나니 다들까. 두터운 스퀴드를 갖춘 두 팀은 1, 2위를 오가며 경합을 벌였다.

폭염과 무더위는 전북 편이 아니다. 울산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인다. 90분 내내 울산은 흐름을 최대한 유지한다. 오히려 전반보다 후반



지난 5월 맞대결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는 울산 김도훈 감독(오른쪽)과 전북 조세 모라이스 감독.

이 강하다. 집중력이 떨어진 후반 31분 이후 15골, 이 중 5골을 추가시간에 만들었다.

전북은 같은 시간대 11골, 후반 추가시간 4골을 터트렸다. 충분히 준수한 기록이나 후반 추가시간 실점도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강원 원정에서 전북은 3-1로 앞서다 후반 추가시간 두 골을 연속히

용했다. 앞선 4월 경남FC 원정경기 때도 전북은 3-0 리드를 하다 경기종료 15분을 남기고 3골을 내준 기억이 있다.

득점과 별개로 뒷심이 결코 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조세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 역시 강원전을 마치고 “끝까지 집중했어야 한다. 상대 상승세의 빌미를 우리 스스로 제공했다”며 침통해했다.

외국인 선수와 선수단 로테이션에서도 울산이 한발 앞선 모습이다.

로페즈 홀로 분전하고 있는 전북과 달리 주니오, 믹스, 불투이스가 버티는 울산은 모든 포지션에서 안정적이다. 한 두 명이 전열을 이탈해도 흔들림이 없다. 울산은 제주 원정에서 믹스, 김태환, 황일수를 아끼고도 대승을 챙겼지만 전북은 강원전에서 이용, 김진수 대신 나선 이주용, 최철순이 기대이하의 플레이로 아쉬움을 남겼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콤팩트 뉴스

‘호날두 노쇼’...추최사 대표 출국 금지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고발 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사 의뢰 한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 금지된 대상은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로빈장 대표로 알려졌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나서기로 했으나 1초도 뛰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후 검사 출신 한 변호사가 이번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 배수사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수서경찰서에 배당됐다. 또한 경기 당시 그라운드 주변에 설치된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A보드 광고가 설치된 것도 논란이 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토트넘, ICC 인터밀란전 승부차기 패

토트넘 손흥민은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터밀란과의 2019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에 교체 출전했다. 후반 19분 해리 케인을 대신해 나선 손흥민은 후반 34분 강력한 왼발슛을 시도하는 등 위협적인 공격을 펼쳤다.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토트넘은 3-4로 패했다. 손흥민은 팀의 두 번째 키커로 나서 골을 성공시켰다. 프리시즌 일정을 마친 토트넘은 11일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을 갖는다. 손흥민은 2018~2019시즌에 받은 징계 여파로 22라운드까지 결장한다.

이강인, 친선전 5경기 연속 출전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의 이강인은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레버쿠젠과 친선경기에서 팀이 2-1로 앞선 후반 29분께 다니 파레호 대신 그라운드에 투입되어 약 16분간 뛰었다. 지난달 21일 AS 모나코, 24일 FC서울, 29일 스포르팅 리스본, 31일 브라이턴 호브 앤 알비온과의 친선경기에서 이어 다섯 경기 연속 출전이다.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발렌시아는 2-1로 승리했다.

이재성, 다름슈타트전 풀타임 소화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2(2부리그)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은 메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다름슈타트와 2019~2020 분데스리가2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잔트하우젠과 개막전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한 바 있는 그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볐다. 홀슈타인 킬은 0-2로 패하면서 1무1패(승점1)를 기록했다.



포항 이수빈(19) 18경기 1골 1도움



제주 서진수(19) 6경기 3도움



강원 김지현(23) 22경기 8골 1도움



울산 이동경(22) 16경기 2골 2도움



서울 조영욱(20) 15경기 2골 1도움

8골 1도움 김지현 영플레이어상 쟁점?...“경쟁은 이제 시작”

(강원)

올 시즌 K리그 영플레이어상 경쟁은 굵직한 신인들의 등장으로 어느 해보다 뜨겁다. 대개 시즌 중반을 넘어선 우열이 가려지지만, 올해는 “이제부터 본격 경쟁”이라고 할 정도로 예측이 어렵다.

과거 신인상에 해당되는 영플레이어상은 프로생활을 하면서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상이다. 신인상은 데뷔 첫 해에만 자격이 주어졌지만, 2013년부터 시행한 영플레이어상은 만 23세 이하이면서 프로생활 3년 이내만 자격이 충족되기에 범위가 넓어졌다.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졌다.

올 시즌 호평을 받는 신에는 이수빈(19·포항 스틸러스)을 비롯해 김지현(23·강원FC) 서진수(19·제주 유니티) 이동경(22·울산 현대) 조영욱(20·FC서울) 등이다. 포항제철중~포항제철고를 거쳐 올해 프

로 무대에 데뷔한 이수빈은 전광석화 같은 패스가 장이다. 어린 나이에 포항의 중원을 책임진 그는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패스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4일 수원 삼성전에서는 전반 추가시간 강력한 중거리포로 결승골이자 데뷔골을 터뜨린 것은 물론이고 기막힌 스루패스로 추가골까지 도와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 신에 중 개인 능력에서는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다. 포항 김기동 감독은 “(이)수빈이는 미드필더로서 갖춰야 할 기술을 갖췄다. 패스 능력이 좋고 센스도 뛰어나다. 터뜨린 모습만 갖춘다면 한국축구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제주 유스 출신 서진수도 빼놓을 수 없는 신예다. 옛된 모습이지만 그라운드에서는 힘이 넘친다. 또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서도 침착하고 여유롭다. 최전방 공격수 바로 아래에서 찬스를 엮어내는 패싱 능력이 돋보인다. 시즌 초반에는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최윤겸 감독 부임 이후 찬스가 왔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전 어엿한 주전이다. 프로 데뷔 3번째 경기이자 2번째 선발 출전이었던 7월 10일 서울과 홈경기에서는 역대 최연소 도움 헤트트릭을 작성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날 활약으로 제주는 6연속 무승에서 벗어났다.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강원의 김지현도 돋보인다. 22경기 8골 1도움으로 신예 중 기록이 가장 좋다. 또 득점은 국내 선수 중 톱 클래스다. 지난해 강원을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한 그는 올 시즌 몰라보게 성장했다. 주로 교체멤버로 나서면서도 극적인 골을 터뜨려 존재감을 키웠다. 184cm,

포항 이수빈, 개인능력 최고 평가 제주 서진수·울산 이동경도 주목

80kg의 듬직한 체구의 그는 힘이 좋아 제 공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골을 넣는 결정력도 수준급이다.

울산 이동경도 주목받는 선수다. 지난해 울산에 입단한 뒤 K리그2 FC안양에 임대로 가 경험을 쌓았다. 올해 복귀한 그는 경쟁한 선배들 사이에서도 주전 공격형 MF로 발돋움했다. 선두 울산의 시즌 성적은 영플레이어상 경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 조영욱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을 통해 전국적인 스타가 된 케이스다. 빠른 발을 이용한 기습적인 돌파가 장이다. 15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최현길 기자 choi2@donga.com

경찰 없는 아산축구단, 해체냐 존속이냐?

K리그 뛰려면 시민구단 전환 필수 프로축구연맹, 9월까지 결정 요청

‘경찰축구단’ 아산 무궁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박동혁 감독이 이끄는 아산은 4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019’ 22라운드 홈경기(0-1 패)에서 경찰 팀으로의 마지막을 알렸다.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팀 운영의 기본인 ‘선수 수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아산은 올 시즌 리그 참가가 불투명했으나 구

단 해체는 산하 유소년 팀들의 대회 출전 불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여론 설득에 나섰고, 기존 프로 선수들을 편입시켜 시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아산은 40여명(경찰 14명 포함)으로 팀을 꾸려왔는데 이 중 고부열과 안현범 등 12명이 12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이제 남은 의경은 이명주와 주세종 둘뿐이지만 이 둘도 9월이면 신분이 바뀐다. 경찰 선수들은 평소 내무생활을 하고 훈련도 반다 경기 스케줄에 따라 팀에 합류하는 ‘두 집’ 생활을 해왔다. 아산 구단이 이번 부산전을 ‘경찰축구단의 공식 이별경기’로 일찌감치 못



경찰축구단 아산 무궁화 선수단이 고별전이었던 4일 홈 부산 아이파크전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박은 배경이다.

아산은 이제 30여명으로 팀을 운영해야 한다. 넉넉하지 않아도 잔여 시즌 소화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진짜 문제는 선택의 순

간도 찾아왔다. 2020년에도 리그에 계속 참여하려면 시민구단 전환이 필수다. 그 외에는 해체 밖에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0년도 참가 팀 구성을 위해 “9월 말까지 프로팀 전환에 대한 답을 달라”고 아산 구단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아산 측은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축구계는 경찰축구단과는 별개로 아산 축구의 존속을 바란다.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구조로 프로리그에 참여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과연 아산 축구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남정현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